

자비와정화 자원봉사상담원 이석진씨(36·여), 7년째 1평반 남짓의 작은 상담실을 통해 아픈 세상을 어루만진다. 매주 월요일 밤 9시부터 다음 달 아침 9시까지 그가 자정한 상담시간이다. 꼬박 밤을 세워 상담실을 지켰으니 몸이 꽤 지쳤으면 그의 눈빛이 맑다.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다. 마침 하늘도 햇살도 좋은 여름날의 아침이다. "목소리만으로 내담자의 표정과 성격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을 파악해야 하니 늘 긴장되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아이들의 다름이 있었는데, 다친 아이의 어머니가 거액의 돈을 요구하니 어찌 하면 좋겠냐는 전화를 받았어요. 자식 키우는 어머니가 어찌 그것을 핑계로 터무니없는 큰 돈을 달랄 수 있겠어요? 하며 한숨을 쉬더군요."



상담실을 통해 본 세상은 슬프고 힘겨웠다. 40대의 한 이혼녀는 7년째 전화를 해온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날 있었던, 차마하고 친구 만나고 한 얘기를 마치 독백하듯 쏟아낸다. 자비와정화에 대해 그렇게 상상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다. 한 중생에 필만의 병고와 번뇌라고 했지만, 몇몇 상담원들은 아픈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 상담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석진씨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나선 것은 아니다. 어려서부터 불교를 알았다' 것이 이유라면 이유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적성에 맞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특기'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어느덧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피안으로 안내하는 등대지가 되었다. 최근에는 동국대 사회교육원에 등록해 사회복지사를 공부하고 있다. "꼭 기쁨을 만들어 상담원교육을 받아보세요. 흡없는 영혼이 어디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으로 보일 거예요." 정성은 기자 (swjang@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금강산 신계사 복원등 대북포교사업

“汎종단 힘모아 추진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과 금강산 관광개발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 조국 평화통일불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금강산문화유적 복원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신계사를 비롯한 금강산 지역 사찰들에 대한 복원에 범종단 차원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고계의 여론은 문화재 복원과 물질적 지원,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실질적 교류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태도와 정부차원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등을 넓은 안목으로 조망하는 신중성과 대표성을 띤 단일 창구를 통한 대북 사업의 전개도 각계에서 주문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장 능관스님은 "대북접촉과 활동을 특정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불교계가 한 목소리로 다가설 때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내놓았다.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냉철한 판단과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태종 총무부장 국성스님과 금강산 유적복원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진각종지회 사무국장 지현정사도 "불교 전체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부부장 법륜스님은 "각 교단단체의 협력과 대북신

뢰 획득을 위해서는 범종단적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 대표성을 유지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금강산 불교문화재 복원등의 사업은 종교교류를 통한 통일 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대승적인 정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은광사암연합회 회장 성운스님과 불교언론인회 신평식회장은 "신계사 복원은 통일 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상징성을 갖는다"며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들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대북사업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신계사 복원이 합의된 만큼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는 데서 불사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여론도

높다. 동국대 문명대교수는 23일 열린 '북한문화재 현황과 보존실태에 관한 세미나'에서 "북한 문화재 조사단 파견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신계사 등 사찰 복원을 위해 광복절이 금강산 국제그룹과 맺은 계약의 충실한 이행여부와 정부차원의 북한 방문관련 법안의 개정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러나 모처럼 마련된 대북 교류의 신장로가 통일의 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신중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고계의 전반적 여론이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진각종 '종단발전 기획위' 설치

남북 통일불사 위한 국제불교연구소도 국난극복 기원 육자진언탑 10월 제막
 진각종(총리원장 성초)은 6월 23일 총리원 종의회의실에서 제 313회 임시총회를 열고 종단발전기획위원회의 국제불교연구소 설립키로 결의했다. 또 총리원 내에 국난극복 기원 육자진언탑 세우고 10월 15일 제막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종의회에서는 총리원장 직속연구 심의기구로 '종단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종책에 반영하는 기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4~5명의 연구원을 둔 종단발전기획위원회는 종헌종법을 수정·보완하는 개정위원회 활동은 물론 종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108대 과제를 추출하고 년차별 종단 발전백서를 발간하는 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2년 종조탄

1500명 찬불가 음성공양
 '경제년 국복기원 찬불가제전'이 6월26일 서울 관문사 4층 목불전에서 천태종 주관으로 열렸다. 천태종 산하 35개 합당단 1만5000명이 한 무대에 선 이번 찬불가제전에는 5천여명의 관객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관문사에서 처음 열린 문화행사였다. <사진=고영배 기자>

관련기사 2·3·11면

국난극복 전국순회 참회대법회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각 종단이 주관하며, 호국 불교와 관련된 불교계 단체들이 후원 참여하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가 7월5일과 10일 잇따라 서울과 대전에서 장엄하게 열립니다. 이번 대법회는 천태종과 관음종이 주관해 전국의 불자 총 1만5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철야로 진행되는 불교 전통 수행법과 함께 전통의식의 시현을 통해 국가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할 예정이어서 교계 안팎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철야 관음정진 참회 영산대재

4·5일 서울 관문사 10일 대전 엑스포광장
제3차 "동체대비 구현 철야 관음정진"
 ● 철야정진: 1998년 7월4일(토) 오후9시 5일(일)오전3시
 ● 회향대법회: 1998년 7월5일(일) 오전11시
 ● 주관: 천태종 총무원
 ● 장소: 서울 관문사(02)3460-5300
제4차 "대참회 영산대재"
 ● 일시: 1998년 7월10일(금) 오후1시
 ● 주관: 관음종 총무원
 ● 장소: 대전 엑스포광장(02)763-3345
 ※ 법회 현장 생중계 불교방송(101.9MHz)
 ※ 녹화 중계: 불교TV(ch32)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후원: 국민회의연동회·자민련총지회·한나라당총지회·군순단 경순단·불교방송·불교TV·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 체험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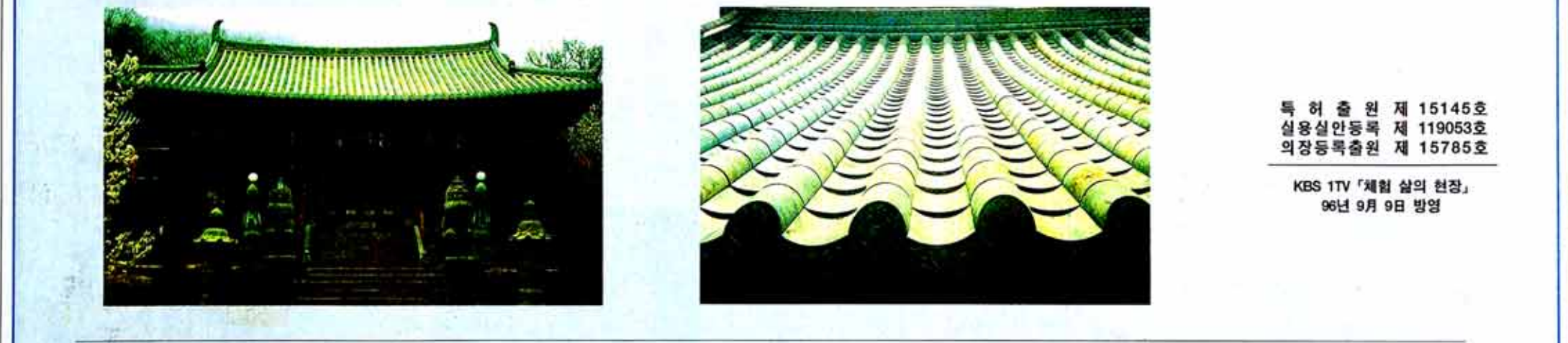
7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에서는 윤 5일을 맞아 3사 순례와 더불어 자신의 입장을 찾고 산업봉기를 발원하는 재의식인 예수재 법회가 열리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대웅전에서 바라보는 동해안 일출로 유명한 동명낙가사, 현재 국보 심의중인 활불이 봉안돼 있는 두타산 삼화사, 적멸보궁으로 유명한 경산 절암사 등을 참배하며 '모래시계' 촬영지로 잘 알려진 정동진 해맞이도 합니다.

7월 "윤오월 3사 순례로 무량공덕을" '삼화사·동명낙가사·정암사'

○ 출발: 7월 11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량2일)
 ○ 회비: 4만원(아침·점심 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혜초여행사 협찬:일양약품

한정한장에 혼을 넣어 장인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 기와불사는 청동주물기와로 시작하십시오.

청동주물기와 600여년만에 복원성공!



특허출원 제 15145호
실용실안등록 제 119053호
의장등록출원 제 15785호
 KBS 1TV '채집 삶의 현장' 96년 9월 9일 방영
우영기업 본사: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95
 주물사업부: (02)473-1958
 인테리어사업부: (02)482-3587
 F A X : (02)474-1550
 http://www.wooyong.co.kr/

- **내구성 및 경제성**
 재래식기와의 무게(중량 400~500kg)와 같은 동과 보 부식으로 건축수명이 단축됨을 청동주물로 주조하여(중량 200~300kg)으로 중량을 대폭감소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구리 주사, 아연을 함유하여 만들었습니다.
- **미관성**
 청동주물기 기와는 수천년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추감을 풍기어 왔으며 청동주물기기도 세월과 함께 고공이후(대화)가 변하지 않는 것임을 자랑하여 우리의 사랑 및 건축물을 더 폭 넓은 감동으로 다가서게 할 것입니다.
- **방수성**
 절토, 절벽, 강변을 포함하여 건조한 시공하여 기와 시공시 1cm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꼭 맞춘 기구체질 시공되므로 100% 방수 기능을 합니다.
- **연구성**
 청동주물기 수평은 수천년전에 사용하던 유물들이 땅속에서 한결 그대로 보존되어 출토되었던 연구자들이 건축물노획으로 인한 재시공에서도 100% 재사용됩니다.
- **주요시공내역**
 1986년 30여개안계엄 이동성도로 제작
 1988년 88올림픽, 통일대주조각, 주조
 1986~1990년 광주, 전주, 정주, 여수, 전국적인 성화대조각 청동주물 제조
 1992~1996년 일본아이니치 겐리리 청동주물 공예품, 납품
 1995년 3월 경남 함안 인제문화재청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5년 10월 서울 삼각산 삼각사, 대웅전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5년 5월 전남 직전사에 경주 황룡사 유실물 치미 국내최초로 복원 시공
 1996년 3월 부산 범어사 (철권당) 대웅전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6년 5월 LG그룹 구세관중재청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7년 청동 영각사 대웅전 시공. (그외 다수 시공중)

◎ 함께 일할분을 모십니다. ◎
 · 전국대리점 모집(각도별)
 · 수출 및 무역, 사업에 동참하실 분